안전, 최강 대한제강의 새로운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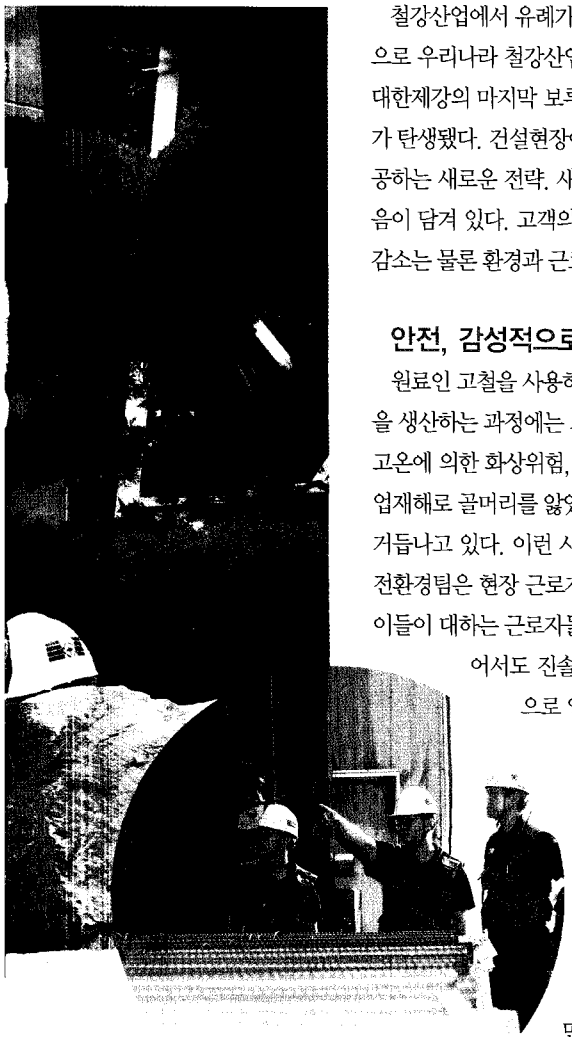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대한제강 본사/신평공장 **김 상 우** 파트장

근로자 가족이 내가 안전을 하는 이유

예전 회사에서 일을 무척이나 열심히 하던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장가도 갔고 갓 태어난 아이도 있었으며, 일을 잘한 덕에 고속승진으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에 열중한 나머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젊은 직원을 찾았을 때 어린 아이를 안고 슬피 울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뭐라 위로의 말도 못하고 가슴 한쪽으로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으로 더 이상 내 직장 동료의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안 되겠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안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이나 건강과 바꿀만한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이는 현장에서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그 분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강산업에서 유례가 없는 차별화로 가치 창출을 목표를 삼고 있는 기업, 대한제강은 정직과 혁신 두 가치를 주축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중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라고 외치는 정직은 대한제강의 마지막 보루이자 대한제강을 새롭게 만드는 핵심가치이다. 올해 대한제강에 "Staz"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됐다. 건설현장에서 철근 강공을 하던 것을 주문을 받아 도면대로 가공하고 이 가공된 철근을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성장전략이기도 한 "Staz" 탄생의 내면에는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이들의 따듯한 마음이 담겨 있다. 고객의 안전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대한제강 본사/신평공장은 산업재해 감소는 물론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확보, 모두에 있어 혁혁한 효과를 거두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있다.

안전, 감성적으로 접근

원료인 고철을 사용하여 전기로에 장입하고, 이를 녹여 연주공정과 압연공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 곳 역시 여타 철강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위험, 고온에 의한 화상위험, 협착위험 등 위험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골머리를 앓았을 정도, 그러나 지금은 다른 동종업보다도 철저한 안전관리활동 전개로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사고발생율 감소와 안전의식의 향상에는 감성적 안전관리기법의 전개가 밑바탕이 되었다. 안전환경팀은 현장 근로자를 대할 때 동생, 삼촌, 아버지 등과 같이 가족적인 호칭을 자주 사용한다. 호칭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하는 근로자들을 가족을 대하듯 하고, 안전활동 자체도 근로자 중심으로 형식적이지 않다. 한마디 말에 있어서도 진솔함을 실천했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소음 등 작업환경을 개선한 결과 열린 마음으로 열린 안전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영 마인드

대한제강의 안전시스템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안전환경팀이 본격적으로 발족되고 활동을 해 나면서 안전한 대한제강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안전을 위해 많은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 경영상태 상 쉽지 않았던 분위기였지만 최고 경영자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보다 더 나은 성과, 즉 안전을 통해서 더 좋은 회사, 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근로자의 만족을 이끌어내어야 생산성향상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특히 "안전을 담보로 조업 할 수 없다."라는 경영자의 마인드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전을 바탕으로 현장의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이 이루어졌고, 이는 또다시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을 불러와 대한제강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고경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안전경영 덕에 대한제강 본사/신평공장은 빠르게 안전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안전교육이다. 4일은 일하고 4일을 쉬어야 하지만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기꺼이 쉬는 날 2일은 안전교육에 할애한다. 휴일은 근로자 고유의 사생활이지만 안전교육을 위해 반납하는 이들의 모습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근로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만큼 안전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안전은 바로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전환, 즉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한 회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작업 사전에 관리

대한제강에는 많은 협력사가 동일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 안전사고도 이들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 진다면 협력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협력사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한제강 신평공장에서는 작업전 협력사로 하여금 사전 안전작업계획서를 받고 있다. 이는 작업형태와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집중하기 위함이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가 고온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할 수 있기에 인력 또한 관리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안전환경팀 순찰요원이 도출한 위험요소와 함께 매월 전 부서가 공유한다. 이 밖에도 부서 중심의 자율안전, 개선활동 중심의 순찰요원 강화 등은 신평공장이 사전점검활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과 자율안전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안전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한제강이 철강업계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